

日本經濟를 보는 韓國의 視角*

邊 衡 尹**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近代化와 對外侵略
- III. 戰後體制의 變貌와 價値指向의 連續性
- IV. 戰後 經濟民主化를 위한 諸改革
- V. 高度經濟成長의 成果와 要因
- VI. 對外經濟關係의 諸問題
- VII. 맺는말

I. 問題의 提起

주지하다시피 日本은 1868年 明治維新을 계기로 하여 近代化의 길을 걸어나갔다. 「殖産興業—富國強兵」이라는 슬로건하에 자신의 발전된 生産力과 增加된 軍事力을 背景으로 하여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大東亞共榮圈」下에서 식민지적 지배를 하였던 나라이다. 또한 日本은 第2次 世界大戰에서의 敗北와 함께 그 生産力이 대부분 파괴되고 復興과 再建의 展望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나라이다. 그러나 戰後 日本은 産業化와 經濟成長을 세계 어떤 先進國보다도 급속히 이루어 오늘날 經濟力에 있어서 世界 第2位로 부상하였다.

日本經濟는 戰後 民主化 改革 및 戰後 復興期 동안 비교적 國內市場 中心의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戰前에는 海外市場 확보와 자원 확보를 위하여 植民地 經營에 나섰던 나라이고 戰後의 高度成長期 以後 高度의 經濟成長은 經濟의 對外的 擴大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 대외적 확대의 패턴 또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이 다시 軍國주의적, 제국주의적 侵略과 支配로 發展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인근 아시아지역 국가에게 주고 있다고 하겠다. 좋은 나쁜든 韓國의 日本經濟에 대한 關心은 각별한 것이며, 그것은 韓國의 社會경제의 歷史的 發展에 있어서의 쓰라린 경험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은 또 다른 肯定的 側面에서 日本經濟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즉 日本은 非西歐國家로서 유일하게 先進國의 대열에 끼어있는 나라이다. 또한 戰後에는 敗戰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속한 經

* 本論文은 1987年 12月 8日 本研究所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움: 日本經濟研究」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 중의 하나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濟成長을 이루어 經濟大國으로 성장하였다. 어떠한 要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그것이 韓國을 비롯한 소위 新興工業國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대상이자 視角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日本經濟에 대한 이상의 두가지 側面에 대한 이해에 基礎하면서 第2次 世界大戰前의 經濟體制와 第2次 世界大戰後의 經濟體制의 차이, 第2次 世界大戰後의 經濟民主化를 위한 改革의 내용과 그 의미, 高度成長의 메카니즘과 要因, 그리고 日本의 對外經濟의 전개를 검토하고 그것이 韓國經濟에 대해 갖는 뜻을 음미하고자 하다.

II. 近代化와 對外侵略

현대 日本經濟의 座標를 檢討하는 方法은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世界經濟 가운데서 日本經濟가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가, 혹은 과거에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가, 그리고 現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또 하나의 方法은 日本經濟의 歷史的 發展過程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第2次 世界大戰을 경계로 하여 日本經濟는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고 따라서 戰前과 戰後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歷史的 發展의 문제는 뒤에 論議하기로 하고 우선 세계 가운데서 日本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는 日本經濟의 發展을 規定하고 있는 外的 條件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그리고 日本經濟의 發展이 또한 外的 條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日本 經濟의 外的 條件을 形成하고 있는 世界經濟는 日本經濟의 立場에서 크게 西歐, 아시아, 그리고 社會主義圈의 세계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

일본경제는 西歐經濟와 비교해 보면, 日本이 1868年 明治維新을 계기로 하여 西歐 및 美國의 뒤를 쫓아 近代化의 길에 나섰다고 할 때, 西歐의 主要 先進國에 비해 近代化의 출발점이 100年 내지 200年 뒤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西歐에서도 獨逸이나 이탈리아등은 日本과 비슷한 時期에 近代國家로서의 體裁를 갖추고 급속한 工業化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日本은 西歐에서 가장 근대화가 늦은 諸國과 거의 같은 時期에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近代化의 세가지 要素를 工業化의 促進, 封建制度의 타파, 그리고 國民國家의 形成이라고 할 때 세번째의 國民國家의 形成에 관해서는 日本이 하나의 섬나라로서 더우기 하나의 民族으로서 그 응집력이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고 封建時代에도 德川幕府의 힘이 비교적 강

대하였기 때문에 封建制度下에서도 國民國家 形成의 前提條件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封建制度의 타파 없이는 西歐型의 近代國家와 近代的 産業을 發展시킬 수 없기 때문에 1868년의 變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日本 近代化의 出發點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이 明治維新을 계기로 하여 近代化의 길로 출발하였으나 日本의 發展을 促進한 가장 중요한 要素는 工業化라고 할 수 있다. 現實的으로 明治維新 전후에 西歐 및 美國에 건너간 日本人들은 西歐의 近代的 産業과 그것이 창출한 새로운 文明을 목격하고 근대화는 이러한 새로운 産業 즉 工業化없이는 不可能하다고 認識하고 工業化를 近代社會 形成의 第1 目標로 삼고 이에 매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近代化에 있어 工業化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近代化 過程에서 農業의 役割을 간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農業生産力의 上昇과 이에 따른 農業部門의 剩餘가 없으면 工業生産 増대를 위한 投資財源이 마련될 수 없으며 또한 勞動의 生産性 上昇이 있어야 식량수요가 충족되는 한편 農業部門으로부터 工業部門으로의 勞動力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農業部門의 發展은 工業部門의 生産物에 대한 需要를 増대시킴으로써 工業化를 促進시키는 役割을 하게 된다.

FAO의 한 研究는 비록 지주제하에서 이기는 하나 明治維新이래로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性이 1868~1882년의 1헥타르당 1.8톤에서 1956~1960年 사이에 4톤으로 상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G.M. Meier, ed.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 444). 이 동안 農民들의 많은 이농을 생각할 때 農民 1人當 生産性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農業部門의 生産性 上昇과 發展이 工業化의 기초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은 非西歐 社會이면서 西歐 帝國主義國家의 侵略을 받지 않고 資本主義 發展의 길을 걷고 또한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를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에 日本의 歷史的 및 地理的 要因이 크게 作用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資本主義化 및 近代化 또는 工業化過程에서의 農業의 肯定的 役割을 간과할 수 없다.

明治維新이후 100여년이 지난 1980年 日本의 工業水準, 所得水準, 生活의 質은 대체로 西歐 및 美國과 거의 같은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73年 日本의 1人當 國民所得은 3,807달러로서 같은 年度의 美國, 西獨 등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나 英國이나 이탈리아의 그것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1983년에는 西獨, 프랑스 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明治維新 以後 約 100年間에 日本의 經濟가 西歐의 수준에 달하고 이를 追越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日本의 經濟가 100餘年間に 西歐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日本에 있어서 工業化의 誘因 혹은 動機로 되었던 模倣的 成長이라는 계기가 점차 상실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日本經濟의 發展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기와 가치가 必要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戰前의 日本經濟는 工業化라는 價値와 함께 國粹主義的 民族主義를 가치로 설정하여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대외적 侵略을 감행한 바 있다. 이제 生産과 所得의 側面에서 西歐의 水準에 도달한 日本經濟가 近代化의 또 다른 側面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市民的 社會關係를 日本에 정착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日本이 近代化를 追求하고 또한 그것이 西歐化를 의미한다고 할 때 日本의 經濟 社會發展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가운데서 日本을 바라본다고 할 때 주목할 만한 두번째의 문제는 近隣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西歐의 내부식민지(enclave)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을 제외하면 非西歐지역에서 유일하게 近代化를 추진하고 近代化에 「成功」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日本만이 유일하게 工業化를 中心 內容으로 하는 近代化에 成功하였다는 사실은 戰前 日本의 군사대국화와 함께 近隣 아시아지역에 破壞的인 충격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日本의 近代的인 國民國家의 形成이라는 것은 近隣 近근대 사회에 대한 侵略의 歷史이었던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까지의 큰 사건만을 보아도 日本은 거의 10年마다 큰 전쟁을 스스로 일으키고 전쟁에 참가하였다(表 2)). 1894年의 淸日戰爭, 1904年 러日戰爭, 1914年 第1차 世界大戰, 1931年 滿州事變, 1937年 中日전쟁 그리고 1941年의 태평양전쟁이다. 이 사이

〈表 1〉 主要 先進國의 人口와 1人當 國民所得

單位：千名, 달러

國 名	人 口 (1983)	1人當 國民所得	
		1973	1983
美 國	233,700	6,259	14,503
日 本	119,259	3,807	9,905
西 獨	61,421	5,548	10,675
英 國	55,610	3,300	8,139
프 랑 스	54,652	4,808	9,967
이 탈 리 아	56,559	2,815	6,194
캐 나 다	24,907	5,598	11,725
오 스트 레 일 리 아	15,369	4,988	10,058
(韓 國)	41,569	396	1,914

資料：經濟企劃院, 『主要海外經濟指標』.

〈表 2〉近代 日本의 對外侵略

年 度	事 項
1874	2- 6 대만 정복을 결정(5-22대만 상륙) 10-31 淸國과 臺灣問題의 조약 조인
1875	5- 7 러시아와 千島・樺太교환 조약 조인
1876	2-26 朝日修好條規에 조인 10-17 小笠原島管治를 각국에 통고
1879	4- 4 琉球藩을 폐지하고 沖繩縣을 설치(5-20 淸國에 의한 항의)
1880	8-18 淸國과 琉球문제 교섭을 개시 10-21 淸國에 琉球분할을 제의(淸國 거절)
1884	12- 4 조선에 갑신정변 발생, 竹添公使 군대를 이끌고 참가
1885	1- 9 全權公使井上馨, 갑신정변에 관한 韓・日 善後約定에 조인(배상 11만圓등) 4-18 淸國과의 친진조약 조인
1889	2-11 大日本帝國 헌법 공포
1894	8- 1 淸國에 선전포고(청일전쟁) 8-20 朝日暫定合同條款 조인(京仁・京釜철도 부설권 획득) 11-21 여순군 점령
1895	4-17 청일 강화조약 조인 4-23 독, 러, 불 3국 요동반도의 청국으로의 반환을 권고(3국 간섭)
1902	1-30 영일동맹 체결, 런던에서 조인
1904	2-10 대 러시아 선전포고(러일 전쟁)
1905	3-10 奉天 점령 5-27-28 日本해상에서의 海戰 6- 9 미대통령 루즈벨트 러일 강화를 권고 9- 5 러일 강화조약 조인(日本의 한국보호 승인, 南樺太・요동반도 조차권・滿鐵 등을 획득) 11-17 제 2 차 조일조약 조인(외교권을 일본이 완전 장악) 12-20 조선통감부 설치
1906	5-22 원로 각료회의 만주문제를 협의 6- 7 남만주 철도회사 설립의 칙령 공포
1910	7- 4 제 2 회 러일협약 조인(비밀협정에서 만주를 특별이익지역으로 분할) 8-22 조선 합병에 관한 조일조약 조인, 조선총독부 설치
1914	8-23 對獨일 선전포고(제 1 차 세계대전에 참가)
1915	1-18 對中 21조항 요구제출(5-9 중국 수락)
1918	8- 2 시베리아 출병 선언
1919	1-18 파리 강화 회의 개최
1921	11-12 워싱턴 회의(12-13 영, 일, 미, 불 4국 협약 조인)
1922	2- 6 워싱턴 회의에서 해군 군축조약 조인
1927	5-28 제 1 차 山東 출병
1928	4-19 제 2 차 산둥 출병 5- 3 濟南사건 6- 4 관동군, 張作霖을 爆殺
1930	1-21 런던 해군 군축회의 개최
1931	9-18 만주사변
1932	1-28 제 1 차 上海사변

年 度	事 項
1933	3- 1 만주국 건국 선언 3-27 일본, 국제연맹을 탈퇴
1936	11-25 일, 독 방공협정 조인
1937	7- 7 蘆溝橋事件(중일전쟁 발발)
1939	7-26 미, 미일 통상조약 폐기를 통고
1940	9-27 독, 일, 이 3국 동맹 조인
1941	12- 8 對미, 영 선전포고
1945	8-14 포츠담 선언 수락 회답 8-15 終戰詔勅

資料：正村公宏 編著, 『セミナー—經濟學教室 8：日本經濟』, 日本評論社, 1975, p. 10.

日本은 끊임없이 朝鮮, 中國, 시베리아에 出兵하고 간섭을 행하며, 식민지적 지배를 強化해 나갔다. 또한 戰爭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軍事大國으로 發展하였으며 軍事大國으로의 역량을 經濟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工業化가 必要하였기 때문에 重化學工業化가 급속히 展開되었다.

第2次大戰 以後 아시아 제국은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 日本 사이에는 經濟力과 文明의 形態, 그리고 사고방식에 있어 커다란 罅이 存在하고 있다. 日本이 第2次大戰 以後 軍事的으로 近隣諸國을 侵略한다는 야망을 거의 갖지 않게 되고 또한 그러한 方向으로의 發展의 危險性이 현저히 減少된 지금에도 日本의 工業的 發展 그 자체 혹은 그것을 背景으로 하는 日本의 經濟的 進出은 여러가지 형태로 近隣諸國의 경계심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바 이것은 日本의 과거의 侵略의 歷史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III. 戰後體制的 變貌와 價値指向의 連續性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日本은 明治維新이래 약 100여년에 걸쳐 工業化를 주축으로 하여 근대화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몇개의 역사적 계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계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의 종결과 그 후에 행해진 일련의 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明治維新이래 日本의 經濟發展의 歷史는 戰前과 戰後의 兩時期로 區分되며 이 兩時期를 비교하면 우리는 日本經濟의 基本的 指向과 그 체제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戰前과 戰後를 비교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敗戰과 함께 日本은 終戰까지 일관되게 추구해온 軍事增強이라는 國家目標을 拋棄했다는 것이다. 日本은 주지하다시피 강대

한 軍隊를 維持한다는 것이 近代의 國家의 條件이라 생각했다. 工業化가 近代國家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며 工業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資源과 市場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近隣國家에 대한 軍事적 侵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軍事대국에의 발전을 정당화했다.

明治維新 以後 1945년까지 日本의 國家 슬로건은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가 殖産興業이고 다른 하나가 富國強兵이다. 殖産興業이란 결국 近代化를 위한 기초로서 工業化를 이루는 것을 意味하고 富國強兵이란 해외시장과 자원획득을 위하여 植民地 쟁탈에 나서고 그를 위하여 軍事力의 增強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日本에 있어 敗戰 또는 終戰의 歷史的 意味는 이러한 軍事적 발전을 통한 工業化 政策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敗戰과 함께 日本은 이른바 美國을 중심으로 한 점령군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점령군은 日本의 非武裝化를 강제하였다. 또한 日本 國民도 第2次 世界大戰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생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平和主義 路線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후인 1950年 以後 사실상 군대가 부활되었다. 1950年 점령군 사령관 맥 아더 원수는 경찰 예비대의 창설을 지령하고 1954年 방위청이 신설되고 자위대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군사비가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日本의 國民經濟의 규모가 보다 급속히 상승한 데에 일부 기인하지만 그것보다는 敗戰에 따라 軍事增強 政策을 포기하고 日本의 政治, 社會運動이 軍事力의 增強을 억제하는 路線을 취하고 이에 대하여 制約을 가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日本의 경우 직접적 軍事費가 國民所得에서 占하는 比率은 1970年代 중반까지도 1%미만이다(〈表 3〉). 主要 先進工業國 가운데서 國民所得에 대한 軍事費 支出의 比率이 이 정도 작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것이 戰前과 戰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戰後 改革의 중요한 內容은 民主化라고 할 수 있다. 民主化는 크게 政治·社會의 民主化와 經濟의 民主化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經濟 民主化의 內容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政治·社會的 民主化의 內容에 관해 언급하면 첫째로 天皇制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천황제는 日本의 傳統的 社會의 遺制이면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對外的 侵略에 國民的 에너지를 집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천황이 戰後에 日本의 國民的 統合의 한 상징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은 日本의 政治生活 및 정신적 생활, 그리고 社會的 行動에 큰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의회제도의 變革을 들 수 있다. 戰後에 들어와서야 女子에게도 選舉權이 주어졌으며 選舉年齡이 20歲로 낮아졌다. 그리고 貴族院이 폐지되고 衆議院과 參議院으로 이루어

〈表 3〉 日本의 軍事費 推移

	일반회계+입 시군사비세출 (A)	군사비세출+ 입시군사비세출 (B)	GNE (C)	구 성 비(%)		
				$\frac{B}{A}$	$\frac{A}{C}$	$\frac{B}{C}$
1928~1932	1,707백 만엔	519백 만엔	14,886백 만엔	30.4	11.1	3.5
1933~1937	2,977	1,687	18,552	56.7	16.0	9.1
1938~1942	19,345	11,957	31,392	61.8	61.6	38.1
1943~1945	39,758	20,906	69,415	52.6	57.3	30.1
1946~1947	161억엔	—억엔	8,920억엔	18.0	—	—
1948~1952	6,837	462	43,400	6.8	15.8	1.1
1953~1957	10,666	1,471	90,800	13.8	11.8	1.2
1958~1962	18,308	1,739	166,200	9.4	11.1	1.0
1963~1967	39,301	3,117	343,600	7.9	11.4	0.7
1968~1972	85,072	6,036	729,800	7.1	11.7	0.8
1972~1975	183,890	11,741	1,337,900	6.3	13.7	0.9

資料：中村隆英, 『日本經濟』, 東京大出版會, 1978, p. 50.

지는 兩院制度가 確立되었다. 또한 의회에 의해 選舉되는 의원내각제 정부가 성립하였으며 그리고 이 정부는 戰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자적인 강력한 권한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세째로 戰後 體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언론, 집회, 결사, 思想의 자유가 새로이 確認되고 日本에서 從前에 경험할 수 없었던 進歩된 自由主義의 體制가 形成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政治·社會의 民主化와 함께 農地改革, 財閥解體·獨占禁止, 集中排除, 勞動民主化 등 經濟民主化 措置가 이루어진 것이 日本 社會經濟 變化的 基盤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民主主義的 改革에 의해 戰後 日本社會는 平和主義와 民主主義의 自由를 基準으로 하여 재편성되고 發展하였다.

戰前과 戰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오늘의 日本 社會·經濟를 理解함에 있어 중요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戰前과 戰後를 貫通하는 어떤 일본 특유의 行動樣式 및 價値體系를 認識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明治維新에 의해 嚮도가 부설된 近代化로의 指向이며, 그리고 工業化를 주축으로 하여 近代化를 한다는 하나의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이 종료된 직후의 日本의 經濟는 戰爭에 의한 破壞에 의해서 극단의 貧困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日本社會는 여러가지 方向으로의 모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선택한 方向은 극도의 貧困에서 탈피하여 豊饒한 社會를 만들어 간다는 方向이었다고 할 수 있다. 戰前에 歪曲되게나마 近代化를 추구하고 [일정한 생활수준상의 상승을 경험했던 만큼 戰爭의 破壞에서 일어서려는 의지는 강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戰前에서 戰時中에 걸쳐서

日本經濟는 이미 重化學工業化를 중심으로 한 상당한 生産設備를 갖고 그것과 관련한 많은 技術者 및 熟練勞動者를 保有하고 있었던 것이다. 生産設備는 공습으로 破壞되었으나 그것을 修復하여 生産을 본 體制에 올려놓기 위한 人的 資源은 상당히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日本은 그러한 狀況에서 다시 한번 近代化—工業化의 路線을 걷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戰後 經濟民主化를 위한 諸改革

戰後 정치사회변의 민주화와 함께 경제면에 있어서의 민주화가 미국 占領軍에 의해 추진 되었으며 이것은 전후 일본의 경제체제 또는 경제질서 형성의 본질적 계기를 이루었다. 경제민주화의 3대개혁은 農地改革, 財閥解體—集中排除, 勞動民主化의 세 가지로 요약되며 이하에서 이들 조치의 각각의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여 보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사령부에 의하여 실시된 경제 민주화 조치의 첫째는 財閥解體이다. 점령군에 의한 재벌해체의 목적은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라고 이해된다. 첫째로는 「전체주의적인 獨占力을 갖는 경제세력을 타파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 재건을 상실케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財閥이 전시중에 얻은 거액의 부당이익을 토해내게 함으로써 戰爭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유리한 事業이 아니라는 것을 日本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해체의 具體的 內容은 먼저 財閥支配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재벌본사—持株會社를 해체하고 그 소유하는 株式을 公開하는 것이었다. 당시 재벌본사 소유의 주식은 167백만주, 금액으로는 81억엔이었는데 이는 당시 총주식수가 443백만주이었던 때문에 재벌이 전체의 4할 가까이를 소유했음을 말한다. 또한 재벌가족의 지정 그 재산의 처분 및 회사임원취임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러한 조치로서 소수의 特權的 家族集團이 持株會社를 장악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巨大企業集團을 지배한다고 하는 체제는 타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벌해체 조치는 독점자본을 장악하는 大資産家의 支配力을 弱화시키고 상대적으로 專門經營人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해체는 獨占支配中樞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었고 일본 독점자본 자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大企業集團의 株式 또는 資本 그 자체를 社會的 所有 또는 國民的 소유로 轉換시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財閥家族 및 持株會社의

손을 떠난 株式은 市場에서 매각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다시 별도의 巨大貨幣資本을 소지하는 대자본 내지 銀行등의 獨占資本集團의 수중으로 集中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재벌해체와 관련하여 취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獨占禁止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4월 「獨占禁止法」이 공포되고 12월에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이 공포되었다. 獨占禁止法은 「셔만법」(Sherman Act)이래의 美國의 反트러스트법의 원리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이것은 거대기업의 市場支配에 대한 農民, 中小企業家, 勞動者의 반트러스트 감정 및 심리에 기초를 두면서 고전적 自由民主主義 혹은 고전적 分權主義의 토대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은 지정회사가 심사에 의해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을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1948년 2월 325個社가 指定되었으나 실제로는 冷戰하에서 日本經濟의 재건이 긴급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集中排除法」의 적용은 大幅으로 緩和되고 실제 分割된 것은 18個社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集中排除法」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나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개의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集中度가, 특히 상위 3사 집중도가 저하하였다. 이것은 戰後 日本에 있어 産業組織上 어느 정도의 競爭條件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戰後 日本經濟는 競爭的으로 設備를 擴張시킨다든가 技術進歩에 努力하고 이를 통하여 經濟成長을 가져오게 하는 메카니즘을 갖게 되었다.

戰後에 행해진 經濟民主化의 또다른 重要한 內容은 勞動基本權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점령군의 指令에 의해 勞動組合法, 勞動基準法, 勞動關係調整法 등 이른바 勞動 3法이 제정되었다. 勞動組合法은 美國의 勞動組合法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勞動者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을 保證하고 파업권을 인정하여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여 勞動者를 解雇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勞動組合活動을 法律的으로 保證하는 것이었다. 美國이 이러한 勞動立法을 日本에 도입한 배경은 뉴딜이후 美國에 實現된 對抗力型(countervailing type) 民主主義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즉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大企業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勞動者를 단결시키는 것에 의하여 社會的 不均衡을 시정한다는 思考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勞動民主化를 위한 제입법과 함께 勞動組合의 組織率은 급속히 상승하여 1945년에 0% 이었던 것이 1940~1949년에는 60% 가까이로 되었다. 당시 유럽 각국의 勞組組織率이 30%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勞組活動도 冷戰의 그림자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위축되었다. 점령군도 당초에는 左翼의 조합활동에 동정적이었으나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産業別 勞動組合會議」가 중심으로된 1947년 2월

〈表 4〉生産의 上位集中度

單位：%

	1937		1950		1962	
	上位 3社	10社	上位 3社	10社	上位 3社	10社
선 철	97.8	—	88.7	93.0	27.7	38.4
철 알 로 이	51.2	60.0	48.8	81.2	34.6	69.3
熱間壓延鋼材	56.2	81.3	49.6	77.1	49.8	78.9
아 연 강 관	19.9	85.5	32.8	70.3	37.6	73.6
전 기 강	74.9	100.0	73.4	100.0	65.3	100.0
알 미 늬	91.8	100.0	100.0	—	100.0	—
베 어 링	100.0	—	76.3	95.4	68.7	92.6
鋼 船	67.5	96.7	39.1	94.1	37.7	75.5
硫 安	60.6	93.5	41.2	87.3	32.7	78.2
過 酸 石 灰	46.6	80.6	47.3	89.7	.0	72.5
苛 性 소 다	55.1	86.5	33.8	71.1	23.5	59.8
합 성 염 료	56.3	70.1	75.2	92.7	64.8	88.8
셀룰로이드生地	77.7	91.2	69.2	89.2	80.6	95.0
레 은 사	36.5	76.1	70.8	100.0	60.5	100.0
綿 絲	33.9	59.1	35.1	88.1	16.6	48.2
綿 織 物	16.5	30.6	18.6	44.2	6.6	17.2
필 프	65.2	85.3	39.5	73.0	30.5	60.6
洋 紙	83.1	98.3	57.0	80.3	39.9	65.9
醬 油	20.1	28.2	16.7	23.7	25.3	30.3
시 멘 트	40.1	78.5	55.9	91.3	47.1	82.0
석 탄	35.4	60.6	35.9	59.6	31.0	55.8
貿 易 ¹⁾	35.1	51.7	13.0	30.5	24.8	50.5
은 행	25.8	61.1	21.8	59.6	19.9	54.5
해 운	29.8	46.8	18.1	33.1	22.8	56.6
生 保	41.4	81.6	47.2	83.7	43.5	85.1
창 고	37.8	61.4	25.2	37.4	20.6	31.2

資料：〈表 3〉과 동일, p. 152.

註：1) 무역은 戰前은 1937~1943년 평균, 1950년의 것은 1951년, 1962년의 것은 1957년의 숫자

1일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탄압을 가하였고 또한 公務員의 罷業權을 박탈하는 명령을 냈다.

세째로 農地改革을 들 수 있다. 戰前의 農地는 그 46%가 지주의 소유지이었다. 물론 대 지주 소지주에 따라 농지소유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그 규모는 1,000정보로부터 1정보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小作農은 이들 地主의 土地를 경작하고 수확의 50~60%라는 고율의 소작료를 현물로 지불하여 왔다.

패전후 農林省은 지주에 5정보를 남기고 그 이상의 토지를 경작자에 양도할 것을 의무로 하는 農地改革案을 만들었으나 연합군사령부는 이러한 改革案이 寄生地主의 권익을 보호 하는 아주 미온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훨씬 철저한 改革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表 5〉 農地改革에 의한 小作地 比率의 變化

單位：千町，%

	農地總面積	그 중 小作地 比率			農地總面積	그 중 小作地 比率	
		1946年11月	1950年 8月			1946年11月	1950年 8月
總 數	5,156	45.9	10.1	東 海	343	40.5	12.4
北 海 道	726	48.7	6.7	近 畿	352	44.9	13.6
東 北	813	48.2	8.4	中 國	398	40.3	10.2
關 東	874	50.6	12.5	四 國	220	43.5	10.0
北 陸	426	49.0	3.1	九 州	706	41.0	10.3
東 山	298	43.4	10.3	內 地 計	4,430	45.5	10.7

資料：〈表 3〉과 동일, p.153.

이후 연합군과 일본정부의 질층에 의해 농지개혁안이 1946년 가을 입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농지개혁의 주된 내용은 ① 정부는 自作農 창설에 필요한 토지를 農地委員會 計劃에 따라 강제로 매수하여 그것을 자작농이 될만한 農民에게 매도한다. ② 매수대상 농지는 不在地主의 農地 전부, 在村地主의 소유자작지에 대해서는 1정보를 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정부에 의한 매수가격의 지불은 농지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④ 農地를 매수한 農民은 농지대가의 全部 또는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殘額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등 매우 철저하고 改革的인 것이었다.

農地改革의 결과 〈表 5〉에서 보는 것처럼 소작자의 比率이 46%로부터 10% 전후로 下落하였다. 특히 東北, 北海道에 있어서 그 變化가 현저하였다. 한편 이러한 土地改革과 더불어 土地生産力이 급속히 높아졌다. 소유권의 이전이 진전됨과 함께 土地改良事業이 크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米作技術이 導入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은 급속히 상승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와 소득의 상승은 노동민주화에 기초한 賃金上昇과 함께 국내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따라서 전후 경제성장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상 검토한 경제민주화의 諸改革은 戰後 日本經濟體制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그것은 또 한 美國式 自由民主主義의 理想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日本이 美國을 中心으로한 資本主義經濟圈의 한 國家로 編入되고 社會主義國家에 대항하여 生産力의 강화와 高度成長의 達成이 要求되면서 이러한 民主化 改革의 제조치는 퇴색하는 推移를 보였다.

V. 高度經濟成長의 成果와 要因

戰後 日本경제의 전개 가운데서 1955년을 하나의 分岐點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經濟는 공습에 의한 破壞와 戰後 混亂의 상태로부터 부흥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식량생산의 增大,

傾斜生産方式에 의한 基幹産業의 생산재개, 원료 및 韓國戰爭에 있어서의 特需의 뒷받침하에 1955년 前後에는 戰前의 生産力 水準을 回復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 日本政府는 『經濟白書』에서 「이미 戰後는 아니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 1955년을 기점으로 日本經濟는 왕성한 설비투자를 축으로하여 重化學工業을 目標로 靑음을 울리면서 전진하였고, 도중에 몇번의 沈滯期가 있었으나 全體로서는 사상 공전의 속도로 경제확대를 거두었던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73년 석유사태로 日本經濟가 본격적 불황기로 접어들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이 時期의 實質成長率은 <表 6>에 提示되어 있다. 高度成長期 19년간의 成長率은 단순평균하여 보면 9.8%로 약 10%에 달한다. 先進國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두자리 成長率은 1

<表 6> 日本 高度成長期の 經濟成長과 景氣局面

成長率 (%)		경 기 국 면		成長率 (%)		경 기 국 면	
1955	8.8	神武景氣 (1954.12~1957.6)		1966	9.8	이자나기 景氣(1965.11~1970.7)	
1956	7.3			1967	12.9		
1957	7.4	남비밀 不況 (1957.7~1958.7)		1968	13.4		
1958	5.6			1969	10.8		
1959	8.9			1970	10.9		
1960	13.4	岩戶景氣 (1658.7~1961.12)		1971	7.3	엔 不況 (1970.8~1971.12)	
1961	14.4			1972	9.1		
1962	7.0	構造 不況 (1962.1~1962.10)		1973	9.9	인플레이 景氣 (1972.1~1973.11)	
1963	10.4			1974	-1.2		
1964	13.2	올림픽 景氣 (1962.11~1964.10)		1975	2.1	스태그플레이션(1973.12~)	
1965	5.1			1975	2.1		
		證券 不況 (1964.11~1965.10)					

資料：林直道, 『現代の日本經濟』, 青木書店, 1976, p.12.

<表 7> 主要 先進國에 있어 經濟指標(年平均 增加率)의 比較 (1961~1970) 單位：%

	實 質 經濟 成長率	鐵工業 生産	設 備 投資	勞 動 生産性	勞 動 賃 金	單 位 金 用 費	輸 出	輸 入	都 賣 物 價	消 費 者 物 價
日 本	11.1	14.1	15.2	11.1	12.2	1.1	17.1	15.9	1.3	5.9
美 國	4.1	4.5	3.9	3.1	4.1	1.0	7.7	10.2	1.5	2.8
英 國	2.8	2.8	4.7	3.2 ¹⁾	6.4	3.2 ¹⁾	6.7	5.7	3.1	4.1
西 獨	4.8	1.8	5.7 ¹⁾	6.0 ¹⁾	8.1	2.0 ¹⁾	11.0 ¹⁾	10.8 ¹⁾	2.0	2.7
프 랑 스	5.8	6.0	9.1 ¹⁾	6.4 ¹⁾	8.1	1.6 ¹⁾	10.1	11.7	3.0	4.0
이탈리아	5.6	7.1	5.2 ¹⁾	6.4 ¹⁾	8.7	2.2 ¹⁾	13.8	12.6	2.6	4.0
캐 나 다	5.2	6.4	5.4 ²⁾	4.3 ¹⁾	5.1	0.8 ¹⁾	11.1	9.6	2.1	2.6

資料：日本銀行, 『日本經濟を中心とする國際比較統計』, 1971.

註：1) 1961~1969년 평균

2) 1961~1968년 평균

回限의, 또는 어떤 연도만의 극히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그러한 異常狀態가 실제로 2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表 7>의 주요 선진국의 經濟指標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理解할 수 있다. 한마디로 日本의 經濟는 다른 先進國과는 比較가 안될 정도로 맹렬한 스피드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은 본격적인 大不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6>에서 보듯이 1957~1958년의 「남비밀不況」이라든가, 1962년의 「構造不況」, 1965년의 「證券不況」, 1971년의 엔不況 등과 같이 好況期의 매듭마다 몇회의 不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不況은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불황의 기간도 짧았다. 즉 不況이라해도 여전히 실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예외없이 5%를 상회하였다. 단지 成長의 속도가 감소된 것 뿐이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이러한 고도성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日本 經濟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高度成長의 要因을 검토하기로 하는 바 高度成長의 要因은 크게 對外的 要因과 對內的 要因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먼저 日本의 高度成長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作用하였던 對外的 要因을 考察하기로 하자.

첫째로 國際機構의 整備를 들 수 있다.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하여 IMF가 성립되었고 各國의 協議에 의해 GATT가 성립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구가 設立되었다. IMF체제는 世界的 通貨機構로서 예전의 金本位制度를 代位하는 것으로 금과 兌換가능한 통화, 구체적으로는 美달러를 基軸通貨로 하는 체제이며 각국 통화는 基軸通貨사이에 고정된 換率을 設定하고 國際收支上的 基礎的 不均衡이 없는 換率을 변경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IMF체제는 資本主義 先進諸國間의 價格競爭을 推進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産業合理化나 技術革新을 통한 輸出價格 引下 以外에는 競爭을 強化시키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産業의 合理化와 近代化를 促進시켰다. 또한 GATT역시 자유로운 貿易關係를 形成한다는 정신하에서 결성되었기 때문에 各國은 外國과의 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 産業의 合理化 및 近代化를 追求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世界經濟의 擴大가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에 유리한 與件으로 作用하였다. 美國은 西歐의 부흥을 원조하기 위하여 大規模의 달러자금을 살포하는 마샬計劃을 實施하고 기타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援助의 形態로 大量的 資金 및 物資를 提供하였다. 이것이 世界經濟의 擴大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西歐제국도 마샬計劃下에서 完全雇傭 및 經濟成長을 그들의 주요 經濟目標로 삼는 등 케인즈적인 經濟擴大政策 基조를 유지하였으며 이것이 世界經濟 擴大 및 日本의 輸出擴大에 크게 寄與했다고 할 수 있다.

세째로 國際的인 資源價格의 安定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은 重化學工業製品을 위한 原

料資源의 獲得이 國內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戰前에는 中國과 朝鮮으로부터 鑛産物을 獲得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것이 中國과 朝鮮을 植民地化했던 중요한 動機였다. 그러나 戰後 美軍의 占領말기부터 貿易이 부활될 때에 우선 問題가 되었던 것이 資源問題였다. 1949年 中國의 共產化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과 北韓의 共產化, 그리고 美國과 社會主義圈과의 관계 악화는 美國에 종속된 日本에 있어서 이들로부터 철광석, 석탄등을 確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日本은 自由世界의 각지에 새로운 開發據點을 구하고 資源開發에 努力한 結果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資源中에서 重要的 것은 석유이다. 石油가 에너지의 주요 源泉이 되고 석유정제에서 나오는 生産物이 石油化學産業 및 여타 産業에서의 基礎素材 또는 原料로 使用되기 때문이다. 1950年代부터 本格化된 石油開發은 供給側에 있어서 販賣者끼리의 競争을 격화시키고 大石油會社의 支配體制를 동요시킴으로써 需要者側에 有利한 狀況이 조성되었으며 日本은 大型 탱커로 大量的 原油를 輸入하여 石油를 主軸으로한 重化學工業의 發展을 促進하였다.

네째로 원활한 外國 技術의 導入을 들 수 있다. 戰後의 日本의 왕성한 設備革新의 동기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日本에 있어서의 技術革新은 주로 外國技術의 導入, 吸收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第2次世界大戰中 많은 技術이 戰爭을 위하여 開發되었다. 전기·전자기술, 그리고 原子力 技術등이 그 代表적 例이며 또한 合成化學分野에서도 새로운 技術이 開發되었다. 電氣·電子分野에 있어서의 텔레비전 및 컴퓨터, 기타 通信裝備 製造技術, 그리고 合成化學分野에 있어서의 나일론, 폴리에틸렌, 合成 고무, 합성세제의 製造技術의 導入, 그리고 原子力發電 設備 및 가동기술 등이다. 日本은 이들 技術을 短期間에 導入, 模倣, 發展시키고 이를 기초로 設備投資를 擴大시켰으며 이들 産業에 있어서 國際競争力을 強化시켰다.

다음으로 고도성장의 국내적 요인을 檢討할 차례이다. 이들 국내요인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專門經營人의 積極적 企業行動을 들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戰敗後의 民主化

〈表 8〉 日本 技術導入件數의 推移

單位：件

年	度	技術導入件數	年	度	技術導入件數
1950~1955		525	1966~1970		4,784
1956~1960		831	1971~1975		8,368
1961~1965		2,184	計		16,692

資料：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要覽』.

〈表 9〉 외국 기술도입의 업종별 내역(1950~1973)

單位：件，%

	도입건수	구 성 비		도입건수	구 성 비
전 기 기 계	2,362	17.2	화 학 제 품	1,974	14.4
수 송 기 계	734	5.4	방 직 제 품	921	6.7
정 밀 기 계	378	2.8	석 유 제 품	293	2.1
일 반 기 계	3,702	27.0	유 리·토 석 제 품	317	2.3
금 속·동 제 품	399	2.9	플 라 스틱 제 품	634	4.6
철 광·비 철 금 속	568	4.1	기 타	1,434	10.5

資料：〈表 8〉과 동일.

改革에 의해 재벌이 해체되고 去來企業의 生産集中이 배제되고 대기업의 우두머리가 추방된 후 일본 기업의 경영자층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所有型」經營者が 後退하고 「雇傭型」「專門經營人」이 부상하여 기업 재건과 부흥의 責任을 맡게 되었다. 새로운 經營層은 「堅實」보다도 「積極性」을 추구하였다. 단순한 高收益보다도 새로운 기업에의 확장을 추구하였고 또한 自己資本 比率이 크게 떨어지는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利負擔을 감수하면서도 확장을 추구하였다. 즉 外部資金에 의존해도 새로운 投資設備가 100% 가까이 操業率을 유지한다면 金利나 減價償却費를 부담하고도 더 높은 收益率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973년의 오일쇼크로 일본 경제가 큰 不況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둘째로는 풍부한 人的 資源과 安定된 勞使關係를 들 수 있다. 공업부문의 노동자는 농업부문에서 궁극적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의 노동자의 공급과 이동은 단일한 요인만이 아닌 여러 요인의 복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農地改革의 결과 농업생산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농업생산 인구의 일부를 공업부문으로 放出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 농업부문으로부터 공업부문으로의 인구의 이동은 農業衰退化 傾向에 의해서도 촉진되었다. 농업용 생산수단의 독점적 가격과 낮은 농산물가격간의 缺狀價格差에 의한 產出성 약화, 농산물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산물의 대량수입, 또한 농업용지의 도로, 공장부지 공지전용을 위한 토지매각 등의 요인으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이것이 離農과 도시 공업부문으로의 低賃勞動力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에 농업부문으로부터의 공업부문으로의 低賃勞動力의 공급은 일본경제에 있어 고도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技術水準이 높고, 資質이 훌륭하며, 勤勞意欲이 왕성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본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로 조직되고 기업별 조합에 있어서의 「회사가 쓰러지면 기업가도 노동자도 없다」라든가 勞使는 이른바 하나의 가족과 같은 「運命共同體」라든가 하는 일본적 노사관계는 賃金の 引上을 抑制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에 있어서의 높은 경제성장은 노동자의 勤勉, 技術進步, 企業의 成長과 蓄積을 위한 노력 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政府政策의 역할 또한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고도성장기의 내각은 吉田, 鳩山, 石橋, 岸, 池田, 佐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田中, 三木, 福田 등의 내각은 모두 自由黨내지 自由民主黨의 내각이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 資本主義體制의 옹호를 기본가치 전제로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내각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池田內閣은 그의 「所得倍增計劃」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성장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무모한 「列島改造論」을 제창한 田中內閣도 池田內閣의 노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鳩山內閣은 反成長論에 기초하여 固定的 豫算規模를 주장하였고 佐藤內閣과 福田內閣은 「安定成長」論을 추진하였으나 대국적으로는 경제의 부흥과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기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政府의 成長政策은 구체적으로는 產業政策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에 대한 特別優待政策을 시행하여 企業 및 產業을 保護, 育成하는 한편 성장의 극대화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公勞協의 파업을 금지하는 등 低賃・勞動統制政策을 펴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의 제공, 조세특별조치에 의한 조세감면, 特別低利融資 등을 통하여 資本蓄積을 촉진하고 또한 외향적 성장구조하에 수출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日本株式會社」라는 말까지도 나왔다.

VI. 對外經濟關係의 諸問題

戰後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일본의 貿易도 일관하여 급속한 확대를 시현하였으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貿易의 역할은 각 발전의 단계마다 약간 달랐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일본의 輸出增加率は 世界輸出 增加率을 상회하는 推移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일본의 경제성장은 民間設備投資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시장의 확대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輸出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패턴에는 여러가

지 요인이 있겠으나 ① 한국, 대만, 중국의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이탈과 미국에 의한 冷戰體制와 大陸封鎖政策 ② 중화학공업부문에 歐美先進國과의 생산력 격차 지속 ③ 戰後民主化를 위한 制度改革이 국내시장의 일정한 확대를 가져오고 국내시장 중심의 성장패턴을 가져오게 한 것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貿易의 역할은 1960년대 중반이후 급격하게 전환하였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貿易自由化」가 외환규제에 의한 輸入制限을 廢止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大量 投資를 통하여 生産力이 발전하고 따라서 대외적 확장에 대한 압력이 증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는 단순한 外貨獲得을 위한 輸出보다도 需要擴大를 위한 수출의 확대가 강조되고 일본경제도 輸出主導型 經濟成長 패턴으로의 경향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이후의 일본의 輸出增加率은 일층 높아졌다. 1965~1970년의 輸出의 年平均 增加率은 18%, 그리고 1971년에는 20%를 넘는 增加率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1955년 이후의 대규모의 중화학공업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輸出增加率은 輸入增加率을 크게 상회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하던 「國際收支의 壁」도 허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再生産의 영역확대는 國內生産→輸出

<表 10> 工業生産 및 輸出에 있어서의 重化學工業 比率

單位: %

	工業生産構成			輸出構成		
	重化學工業 業品比率	그 중		重化學工業 業品比率	그 중	
		機 械	金 屬		機 械	金 屬
1880	—	—	—	3.2	(0.0)	(4.0)
1900	—	—	—	12.3	(0.3)	(7.1)
1909	19.6	(5.4)	(4.1)	17.6	(0.8)	(11.9)
1920	31.2	(11.6)	(7.6)	11.3	(3.1)	(3.5)
1930	35.4	(10.6)	(9.6)	9.4	(3.1)	(3.8)
1935	52.7	(—)	(—)	—	(—)	(—)
1940	63.2	(—)	(—)	—	(—)	(—)
1955	44.7	(15.0)	(16.8)	37.8	(13.8)	(19.3)
1960	56.7	(26.1)	(18.9)	44.2	(25.6)	(14.1)
1965	56.6	(26.5)	(17.7)	62.4	(35.4)	(20.5)
1968	59.9	(31.0)	(17.8)	67.9	(43.6)	(18.1)
1970	62.6	(32.4)	(19.3)	73.8	(46.6)	(19.9)
1972	60.6	(32.4)	(17.6)	77.0	(53.8)	(17.0)
1973	—	—	—	79.4	(55.1)	(18.5)

資料: <표 2>와 동일, p. 40.

〈표 11〉 아시아 諸國의 外資導入에서 차지하는 日本의 比重

單位：%

년	도	美	國	日	本	서 네	독·영 덜·란드· 홍콩	국	합	계
1969년	말	38.5		13.6			13.2		100.0	
1973년	말	30.5		22.2			20.3		100.0	
1975년	말	25.2		33.6			20.8		100.0	

資料：〈표 6〉과 동일

→海外投資(海外生産)이라는 경로를 거쳐 실현되는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戰後 日本의 海外投資는 1951년부터 시작하나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경제의 海外指向性이 강화되는 가운데 海外投資는 國民所得이나 輸出의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3년말경 海外投資累計額(許可基準)은 약 100億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海外投資의 급속한 확대는 ① 일본의 重化學部門에서의 競爭力 確保와 輸出增大에 의한 經常收支 黑字基調의 定着 ② 先進國 市場에서의 급속한 輸出增大에 따른 무역마찰과 그 극복을 위한 현지생산의 필요성증대 ③ 資源確保를 위한 投資의 必要性 增大 ④ 勞動集約的 製品에서의 賃金上昇으로 인한 競爭力 低下와 海外的 低賃金 利用을 위한 投資 필요성의 증대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日本의 海外投資의 構造的 특징은 그것이 동남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표 11〉). 이것은 日本이 이 地域에서 이미 商品輸出로서 기반을 다져 놓은데다가 이들 地域에 있어서의 地理的 隣接性, 文化的 類似性 등의 有利性을 利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궁극적 진출동기는 이 地域에 있어서의 低賃勞動力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II. 맺 는 말

이상 日本 經濟의 전개과정을 세계경제에서의 일본경제라는 시각하에서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韓國經濟와의 關係하에서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經濟力 發展을 檢討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고도성장과 관련하여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日本 近代化의 기점은 明治維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대화の内容은 공업화, 평등한 社會關係의 成立, 近代的 國民國家의 形成이라고 할 때 첫째와 세계의 側面에서 일본사회는 어느 정도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을 先進國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러한 成果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반면에 일본의 近代史는 侵略으로 점철되어 왔음

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따라서 日本의 近代化 및 工業化에는 많은 희생이 수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敗戰과 함께 日本經濟의 體制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연합군사령부에 의한 經濟民主化의 諸改革은 日本經濟에 自由民主主義的 要素를 많이 도입, 정착시켰으며 이것이 초기 단계에서 日本經濟의 부흥과 活性化에 크게 貢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일본경제의 급속한 부흥은 단순히 美國에 의한 經濟民主化의 諸改革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戰前에 蓄積된 技術, 資本 그리고 勞動者의 力量에 기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경제의 民主化를 위한 연합군사령부의 諸改革도 일본에 있어서 高度資本蓄積이 要求되면서 그 내용이 완화되거나 굴절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韓國에서는 日本이 한국이 따라가야 할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이 非西歐社會에서 유일하게 近代化에 成功하여 先進國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일본은 1955년부터 거의 20년에 걸친 高度成長을 이루었으며 韓國도 日本과 유사하게 19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일본이 20년동안 고도성장을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유리한 대내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완전고용유지 성장확대를 위한 정책과 특히 미국의 대의원조가 세계경제의 擴大均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IMF-GATT體制가 日本의 市場擴大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기왕에 蓄積된 技術的 力量을 바탕으로 先進技術을 導入함으로써 산업활동을 확대시키고 競爭力을 확보해 나갔다. 대내적으로는 교육받은 人的 資源이 풍부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低賃金體制가 유지되었던 것이 고도성장의 가장 기본적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고도성장과 高度資本蓄積은 大企業 또는 獨占資本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財政, 金融, 産業政策이 이를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경제의 擴大는 아무런 「代價」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대로 그것은 大企業, 獨占資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所得과 福祉는 희생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일본의 勞動所得分配率이 낮은 것은, 그리고 政府支出에서 社會保障支出의 比率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그것을 반영한다.

일본경제는 또한 고도성장이전의 기간에는 經濟復興의 시기로서 주로 國內市場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高度成長 이후의 시기에는 海外市場의 開拓에 열을 올리고 또한 輸出中心의 經濟成長 戰略을 채택하였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상당히 「自給自足的」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즉 석유, 철, 목재 등 原料의 輸入依存도는 극히 높으나 中間材는 거의 자급자족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日本經濟가 海外市場 및 海外投資

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競爭力이 더 확보되고 國際收支 黑字基調가 정착되고 外貨가 蓄積되면 될수록 海外投資에 대한 욕구는 더욱 增加되고 이것이 隣近諸國과의 經濟的 摩擦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